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연구

A Study on the Child Care Providers' Perception on the
Seoul-Type Child Care Accreditation System

김영옥(Kim, Young Ok)* · 최인화(Choi, Inhwa)**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시설장 69명과 보육교사 240명, 총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χ^2 검증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시설장과 교사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행의 주요 목적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이며,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증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고 다음은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비해 쉽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해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사이의 선호도 차이가 해소될 것을 시설장과 교사 모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체계에서 시설장은 맞춤보육서비스 평가 시 '계획서만 제출'하는 방식을, 교사는 '맞춤보육서비스 실시 후 평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보육서비스와 클린운영 영역에서는 시설장과 교사 모두 현재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셋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보완과 정부의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제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

* 제1저자: 다솔어린이집 원장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교수, ichoi@mju.ac.kr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이 처음 시작될 당시의 보육은 자기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양육자에게 맡기는 탁아의 의미가 강했다. 1960년대 후반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말미암아 탁아의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를 쉽게 하였다. 경제발전으로 취업모가 늘어나면서 가정 밖에서 돌봐야 할 아동이 증가하자 보육시설은 원래 목적인 도시지역 빈곤계층의 아동 탁아에서 중산층 위주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김익균·정원주, 2000).

1995년부터 3년간 시행된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양적인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빠른 성장을 가져와, 2008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3,499개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의 주된 역할이 탁아사업에서 아동보육·교육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며 양질의 보육,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사고와 안전사고는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서비스를 드러낸 극단적 사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부모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준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은 부모들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의 5.5%이고 아동 수 기준으로는 전체 수요의 11%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육시설(42.6%)과 가정보육시설(46.3%)을 합하면 전체 보육시설의 약 9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육현장이 민간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평균이용률(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민간시설이 78%~79%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은 87%로 더 높아,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환, 2009).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나 취업 모에 대한 보육지원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상당수가 일반아동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설치 및 교사 인건비에 투자되는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전체 보육시설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시설의 시설설치 비용은 운영자 개인이 부담하며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등이 없어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은 시설 임대율이 높는데 보육료를 받아 임대료까지 지급하

면 비용대비 서비스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재정 상태가 열악하면 보육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임금이 낮은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낮은 이용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육아정책 개발 센터, 2008).

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의 5.0%(1,349개소)였던 국·공립보육시설을 2008년까지 연간 400개소씩 확충하여 그 비율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말 전체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1,474개소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저조한 것은 신축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을 위해 정부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40%를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자치단체는 차등보육료의 지원 조차도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육아정책 개발 센터, 2008).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민간 시설의 압력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민간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지역에 새로운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설은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을 통한 확대가 어렵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보육의 민간시설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는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의 평균 정원 충족률이 83%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육 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는 대기자가 몰려 있어 많은 부모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단기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서울시 소재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증절차를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공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육정책이다(서울시 공청회자료, 2008).

서울시에서는 2009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말까지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공인인증을 100%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09년 말 현재 전체 5,684개 시설 중 35.6%인 2,025곳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받았다(서울신문

2010.5.12.25면). 이처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받는 시설은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후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가 평가인증제가 정착되는데 도움을 주었듯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을 확대하기 전에 이미 공인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받은 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인식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가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결하여 전체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 종사자의 공인인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 종사자의 공인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 종사자의 공인인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종사자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http://iseoul.seoul.go.kr>)의 서울형 인증시설 찾기를 통하여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서울형 공인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총 119개소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2010년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목록에 있는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나중에 직접 방문하여 32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응답이거나 일부 답변이 빠지는 등 답변이 성실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총 309부(시설장 69부, 보육교사 240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 보육시설	60	19.4
	민간 보육시설	122	39.5
	가정 보육시설	115	37.2
	법인 보육시설	11	3.6
	직장 보육시설	1	.3
직급	시설장	69	22.3
	보육교사	240	77.7
연령	20~29세	112	36.2
	30~39세	98	31.7
	40~49세	75	24.3
	50~60세	19	6.1
	60세 이상	5	1.6
근무경력	3년 미만	82	26.5
	3-5년 미만	69	22.3
	5-10년 미만	98	31.7
	10년 이상	60	19.4
합계		309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최연희(2008)와 이효숙(2008) 그리고 김재환(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후 서울형 공인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시설장 3명, 보육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보육교사 3명과 아동보육전문가 1인의 자문에 근거하여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시설장과 보육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예비조사 자료와 아동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쳐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4문항(직급, 연령, 근무경력, 재직 중인 보육 시설의 유형),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6문항(공인인증제 실시의 주요 목적, 공인인증제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 유형,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비해 쉬운 정도,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저 출산율 및 여성인력 활용과 국공립 어린이집 편중 선호 현상 해결에 도움되는지 여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 4문항(맞춤보육서비스, 안심보육서비스, 클린운영체계에 대한 인식과 공인인증 통과에 따른 재정 지원),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한 의견 2문항(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의 보완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 대한 인식, 운영체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공인인증제 실시의 주요 목적,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의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 유형,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비해 쉬운 정도,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저 출산율 및 여성인력 활용과 국공립 어린이집 편중 선호 현상 해결에 도움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 실시의 주요 목적

시설장과 교사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 실시 주요 목적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기 위해 공인인증제 실시의 주요 목적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을 전체 시설장과 보육교사 308명 중 268명(87.0%)가 선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되는 선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177명(57.5%),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이 145명(47.1%), ‘정부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 제고’가 89명(28.9%), ‘저출산 해결 및 여성인력 활용’이 53명(17.2%), 기타가 8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순위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 실시의 주요 목적으로 시설장과 교사 모두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 실시의 주요 목적(복수응답)

	시설장(N=69)	교사(N=239)	전체(N=308)
	빈도(%)	빈도(%)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55(79.7)	213(89.1)	268(87.0)
정부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 제고	18(26.1)	71(29.7)	89(28.9)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35(50.7)	110(46.0)	145(47.1)
국·공립 어린이집 편중 현상 해소	36(52.2)	141(59.0)	177(57.5)
저출산 해결 및 여성인력 활용	14(20.3)	39(16.3)	53(17.2)
기타	3(4.3)	5(2.1)	8(2.6)

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 유형(복수응답)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의 유형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후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전체 시설장과 보육교사 305명 중 245명(80.3%)가 서울형 공인인증의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 유형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이 187명(61.3%), ‘국·공립 보육시설’이 136명(44.6%), ‘법인보육시설’이 107명(35.1%), ‘직장보육시설’이 106명(3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순위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장과 교사 모두가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공인인증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보육시설이고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

	시설장(N=67)	교사(N=238)	전체(N=305)
	빈도(%)	빈도(%)	
국·공립보육시설	24(35.8)	112(47.1)	136(44.6)
민간보육시설	53(79.1)	192(80.7)	245(80.3)
가정보육시설	45(67.2)	142(59.7)	187(61.3)
법인보육시설	20(29.9)	87(36.6)	107(35.1)
직장보육시설	19(28.4)	87(36.6)	106(34.8)

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비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비교한 결과 시설장과 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비해 ‘쉽다’는 견해가 ‘어렵다’는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정도에 있어 ‘쉽다’는 인식은 시설장 48명(69.6%)와 교사 178명(75.4%)로 교사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어렵다’는 인식은 시설장 21명(30.4%)와 교사 58명(24.6%)로 시설장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비교

	시설장	교사	χ^2
	빈도(%)	빈도(%)	
서울형이 더 쉽다	48(69.6)	178(75.4)	.955**
서울형이 더 어렵다	21(30.4)	58(24.6)	df=1

** $p < .01$

4)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과 같다’가 151명(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증가하지 않았다’ 102명(33.3%), ‘증가했다’ 53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시설장과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증가하지 않았다	27(39.7)	75(31.5)	102(33.3)	2.635 df=2
이전과 같다	33(48.5)	118(49.6)	151(49.3)	
증가했다	8(11.8)	45(18.9)	53(17.3)	

5)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한 저출산과 여성인력 활용의 어려움 해결 전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가 전체 176명(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적이지 않다’ 91명(29.8%), ‘낙관적이다’ 38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를 통한 저 출산율 및 여성인력 활용의 어려움 해결에 대한 견해는 ‘보통이다’의 중립적인 견해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공인인증이 저출산 현상 및 여성인력 활용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한 저출산 및 여성인력 활용의 어려움 해결 전망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낙관적이지 않다	28(41.8)	63(26.5)	91(29.8)	5.863 df=2
보통이다	32(47.8)	144(60.5)	176(57.7)	
낙관적이다	7(10.4)	31(13.0)	38(12.5)	

6)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현상 해소에 대한 견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현상이 해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 편중 선호 현상 해소에 대한 견해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가 130명(42.2%)로 가장 많았고, ‘해소될 수 있다’가 88명(28.6%),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가 68명(22.1%),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가 12명(3.9%), ‘많이 해소될 수 있다’ 10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현상이 해소 될 것인지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보통이다’라는 중립적인 견해 다음으로 ‘해소될 수 있

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현상 해소에 대한 견해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3(4.4)	9(3.8)	12(3.9)	1.283 df=4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16(23.5)	52(21.7)	68(22.1)	
보통이다	25(36.8)	105(43.8)	130(42.2)	
해소될 수 있다	21(30.9)	67(27.9)	88(28.6)	
많이 해소될 수 있다	3(4.4)	7(2.9)	10(3.2)	

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운영체계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맞춤보육서비스(시간연장제, 시간제, 휴일제, 장애아, 다문화가정자녀 등 취약보육), 안심보육서비스(급·간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 클린운영체계에 대한 인식과 공인인증 통과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1) 맞춤보육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맞춤보육서비스 평가방식 운영(시간연장제, 시간제, 휴일제, 장애아, 다문화가정자녀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인인증과 동일한 계획서만 제출'을 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이 전체 136명(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맞춤 보육 실시 후 평가' 111명(36.8%), '주요사안(개요, 제목 등)만 제출' 44명(14.6%), '기타' 11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공인인증의 맞춤보육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시설장의 경우 '공인인증과 동일한 계획서만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한 응답이 40명(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맞춤 보육 실시 후 평가' 17명(25.4%), '주요사안(개요, 제목 등)만 제출' 7명(10.4%), '기타' 3명(4.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공인인증과 동일한 계획서만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이 96명(40.9%)로 '맞춤 보육 실시 후 평가' 94명(40.0%)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요사안(개요, 제목 등)만 제출’은 37명(15.7%), ‘기타’는 8명(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맞춤보육서비스 운영에 대한 견해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공인인증과 동일한 계획서만 제출	40(59.7)	96(40.9)	136(45.0)	8.317* df=3
맞춤보육서비스 실시 후 평가	17(25.4)	94(40.0)	111(36.8)	
주요사안(개요, 제목 등)만 제출	7(10.4)	37(15.7)	44(14.6)	
기타	3(4.5)	8(3.4)	11(3.6)	

* $p < .05$

2) 안심보육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심보육서비스 (급·간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공인제도 만족’이 전체 190명(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 필요’ 51명(18.3%), ‘자율장학 위탁체제, 직영운영 모두 필요’ 30명(10.8%), ‘기타’ 7명(2.3%)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공인인증의 안심보육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시설장의 경우 ‘현행공인제도 만족’이 전체 39명(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 필요’가 24명(35.3%), ‘자율장학 위탁체제, 직영운영 모두 필요’ 3명(4.4%), ‘기타’ 2명(2.9%)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현행공인제도 만족’이 151명(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 필요’ 27명(12.9%), ‘자율장학 위탁체제, 직영운영 모두 필요’ 27명(12.9%), ‘기타’ 5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장과 교사 모두 ‘현행공인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시설장의 경우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에게서는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 필요’와 ‘자율장학 위탁체제, 직영운영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9>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심보육서비스에 대한 견해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현행공인제도 만족	39(57.4)	151(71.9)	190(68.3)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 필요	24(35.3)	27(12.9)	51(18.3)	19.146***		
자율장학 위탁체제, 직영운영 모두 필요.	3(4.4)	27(12.9)	30(10.8)	df=3		
기타	2(2.9)	5(2.4)	7(2.5)			

*** $p < .001$

3) 클린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클린운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회계 관리 시스템(시설명의 1계좌 단일화) 및 클린카드 사용 지정은행(우리, 신한은행)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현재의 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169명(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카드 활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명(18.4%), '다양한 타 은행이용이 적절' 55명(18.4%), '고액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사용' 10명(3.3%), '기타' 10명(3.3%)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공인인증의 클린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설장과 교사 모두 현재의 회계 관리 시스템(시설명의 1계좌 단일화) 및 클린카드 사용 지정은행(우리, 신한은행) 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클린운영체제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현 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43(63.2)	126(54.5)	169(56.5)			
고액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사용	3(4.4)	7(3.0)	10(3.3)			
다양한 카드 활용이 적절	8(11.8)	47(20.3)	55(18.4)	3.640		
다양한 타 은행이용이 적절	11(16.2)	44(19.0)	55(18.4)	df=4		
기타	3(4.4)	7(3.0)	10(3.3)			

4)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전체 167명(5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88명(28.8%), '만족한다' 51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재정지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시설장과 교사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재정 지원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시설장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교사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 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만족하지 않는다	28(41.2)	60(25.2)	88(28.8)	6.763* df=2
보통이다	34(50.0)	133(55.9)	167(54.6)	
만족 한다	6(8.8)	45(18.9)	51(16.7)	

* $p < .05$

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활성화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보완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보완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서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212명(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급여' 46명(15.0%), '시설장의 호봉승급' 35명(11.4%), '기타' 13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공인인증의 보완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이 전체 31명(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시설장의 호봉승급' 27명(39.1%),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급여' 6명(8.7%), '기타' 5명(7.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이 181명(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급여' 40명(16.9%), '시설장의 호봉승급' 8명(3.4%), '기타' 8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서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이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교사와 시설장 모두 동의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보육교사가 시설장보다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장의 호봉승급' 경우에는 시설장이 교사와 비교하면 보완점으로 제안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의 보완점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 간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보완점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	31(44.9)	181(76.4)	212(69.3)	71.622*** df=4
시설장의 호봉승급	27(39.1)	8(3.4)	35(11.4)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	6(8.7)	40(16.9)	46(15.0)	
기타	5(7.2)	8(3.4)	13(4.2)	

*** $p < .001$

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이 183명(59.4%)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 및 직업에 대한 효능감'이 50명(16.2%)로 '학부모들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이해와 호응'이 45명(14.6%), '보육시설 경영자의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24명(7.8%), '기타'가 6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설장과 교사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

	시설장	교사	계	χ^2
	빈도(%)	빈도(%)		
정부의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	43(62.3)	140(58.6)	183(59.4)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노력 및 직업 효능감	15(21.7)	35(14.6)	50(16.2)	
보육시설 경영자의 보육수준 향상노력	4(5.8)	20(8.4)	24(7.8)	4.483
학부모의 공인인증에 대한 이해와 호응	6(8.7)	39(16.3)	45(14.6)	df=4
기타	1(1.4)	5(2.1)	6(1.9)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종사자인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실시의 주요 목적으로 시설장과 교사 모두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라고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정희, 2004; 김현숙, 2008; 서미라, 2008; 오민수,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편중되는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보육현장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신축이 어려운 국·공립 보육시설에 편중된 부모의 선호도를 민간보육시설로 나누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실시의 주요 목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선택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대상으로 적합한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가정보육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모든 보육시설이 먼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남희숙, 2003; 문지희, 2004; 이세라피나, 2003)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서울형 어린이

집 공인인증제의 대상이 다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정한 평가기준과 요건을 만족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원하는 보육 시설 종사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서울시 소재의 모든 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하여 인증하고 있다. 이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를 통해 민간 시설의 보육수준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부모들의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현상을 해결하려 한 원래의 의도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에 참여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비해 ‘쉽다’는 견해가 ‘어렵다’는 견해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쉽다’는 인식은 시설장보다 교사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어렵다’는 인식은 시설장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후 약간 보완된 지표를 가지고 서울형 공인인증을 준비하기에 더 쉽다고 여기지만 시설장은 서울형 공인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보다 감당하는 역할이 더 많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통과 이후 원아 수 증가 여부에 대해 ‘이전과 같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장상란(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서울형 공인인증 통과 여부가 원아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인(2008)의 연구에서도 학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 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인지 여부보다는 ‘등하원의 편리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형 공인인증 통과 여부가 원아 수 증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설장보다 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는 중립적인 견해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이 교사에 비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며, 교사는 시설장에 비해 ‘보통이다’라는 중립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현상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보통이다’라는 중립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

는 긍정적인 응답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보육현장 종사자가 서울형 공인인증제를 통해 국공립과 민간 시설 사이의 선호도 차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대가 현실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맞춤형보육서비스 운영의 경우 시설장과 교사 간에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장은 시간연장제나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등 맞춤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시설이 '공인인증과 동일한 계획서만 제출'함으로써 평가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는 '맞춤보육서비스 실시 후 평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보육서비스의 경우 1가지 이상을 실시하며, 그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시설환경적합, 전담인력배치, 프로그램실시 등이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나 맞춤형보육서비스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의 경우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해당되는 원아의 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교사를 채용할 경우 급여나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맞춤형보육서비스에 대해 계획서만 제출하여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심보육서비스(급·간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설장과 교사 모두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설장의 경우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사는 '자율장학요원 모니터링 필요'와 '자율장학 위탁체제, 직영운영 모두 필요'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형 공인인증 시설 중 자체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급·간식 식단은 대부분 각 구 보건소나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각 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받아 사용하며, 당일의 급·간식 식단을 보육포털사이트에 게시하여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다.

클린운영 영역에서 시설장과 교사 모두 현재의 회계 관리 시스템(시설명의 1계좌 단일화) 및 클린카드 사용 지정은행(우리, 신한은행) 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영유아들의 감소로 보육료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설의 경우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금액을 써야 할 경우 균형잡힌 지출 계획이 어려우므로 마이너스 통장이나 할부를 이용하여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도 좋다는 기타의견이 있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지원 등 전반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 시설장과 교사 모두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견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형 공인인증 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활성화에 대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힌 장동순(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현재 12시간이다. 보육교사의 휴식시간도 1시간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육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8시간 이상을 근무하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인건비 항목지출이 가장 큰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시간 외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보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이라는 말이 있다. 보육교사의 시간 외 장시간 근무는 번아웃(burnout) 현상을 일으켜 보육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대인력을 상시로 배치하거나 대체교사를 지원,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의 호봉승급’, 교사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급여’로 나타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의 보완점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으로 인해 새로이 적용된 호봉체계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교사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 1호봉으로 책정되어 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타 직종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았으나 호봉제로 되면서 어느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경력교사와 초임인 3급 교사가 같은 호봉으로 지급되어 경력교사의 처우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이전의 교사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장의 호봉승급에 대한 높은 보완 요구는 가정보육 시설장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함께 민간보육 시설장은 시설장 인건비 1호봉으로 책정되었으나 가정보육 시설장은 교사 1호봉으로 책정되었다.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담임까지 맡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실정인데 이렇

때 시설장 인건비가 아닌 교사 인건비로 호봉을 책정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80%가 지원되며 시설에서는 20%를 부담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가 다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이전 시설에 있었던 경력을 포함해서 산정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호봉이 낮아 시설에서 부담하는 교사의 급여 20%가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행 했수가 늘어나고 서울시의 전체 보육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경력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시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경력교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보육경력이 짧은 초보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곧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경력을 반영한 호봉체계를 통해 능력 있는 교사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경력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비율을 재정비하여 보육시설에서 경력교사 채용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정부의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 및 직업에 대한 효능감’, ‘학부모들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이해와 호응’, ‘보육시설 경영자의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교사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질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공립은 물론 모든 보육시설이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관련된 보육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보육교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학부모들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장과 교사의 노력에 호응할 때 모든 아동에게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보육시설 중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구로구 소재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 30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과 운영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본 것으로 이를 모든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을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등을 통해 보육종사자의 인식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공인인증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익균, 정원주. (2000).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김정희. (200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 (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4), 43-72.
- 김현숙. (2008).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희숙. ((2003). 보육시설 관계자의 평가인증체제에 대한 인식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희. (2003).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통계.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 서미라. (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인증 참여보육교사와 비 참여보육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2008).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계획 공청회자료.
- 오민수. (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 개발 센터. (2008). 보육정책: 미래지향적 추진방향과 과제.
- 이세라피나. (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한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들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숙. (2008).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시설 시설장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순. (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상란. (2008). 평가인증 후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및 사후관리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 (2008).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100곳 만든다 (2010. 5. 12). 서울신문, p.25.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http://iseoul.seoul.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http://www.mw.go.kr/)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directors and child care providers regarding the Seoul-type Child Care Accreditation and its operating system. The objects were 309 directors and child care providers at accredited Seoul-type child care cente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iles, and χ^2 .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directors and child care providers perceived 'the preparation for effective quality control of child-care service' as the primary purpose of the Seoul-type Child Care Accreditation. Many of them responded that the child care centers meeting the purpose of accreditation would be 'private' and 'home-based' ones. Seoul-type Child Care Accreditation was easier to pass compared to National Child Care Accreditation. The directors and child care providers perceived that the accreditation will narrow the gap between 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centers.

Second, in operating customized child-care service, most directors preferred 'submits only the same plan as that of a designated one', but most child care providers preferred 'assessment after providing customized child-care'. For the reliable child-care service and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both subject groups showed general satisfaction with 'current system'.

Third, both subject groups responded that 'overtime pay for child care providers' and 'government's consistent child-care policy' were what they desire most to improve Seoul-type Child Care Accreditation.

Key words : Seoul-type Child Care Accreditation,
Child care providers' perception